

비타민의 아버지



더운 날이 계속되면, 미야자키의 향토 요리 ‘히야지루’가 먹고 싶어집니다. ‘히야지루’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오이지요. 이 오이의 생산량은 작년, 미야자키가 전국 1 위(2021 년)이었습니다. 더해서, 피망의 생산량도 전국 2 위였습니다. 이 오이와 피망에는 풍부한 비타민 C 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은 미네랄과 같이 에너지는 되지 않지만, 단백질, 지방질, 당질의 분해와 합성을 돕는 기능을 하여, 건강 유지와 컨디션 관리에는 빠질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이번 달의 리빙인 미야자키에서는, 이 비타민의 발견에 공헌해 ‘비타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장의 위인을 소개합니다.

다카기 가네히로 (1849 년~1920 년)은 현재의 미야자키시 다카오카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네히로는 젊었을 때부터 의학에 뜻을 두어 영국에서 임상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 각기병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각기병은 세균이 원인인 전염병이라 여겨지는, 말초신경에 피해를 입혀 하지 저림과 마비를 일으키고,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가네히로는 원인은 세균이 아니라 흰 쌀 중심의 일본 음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빵과 고기, 야채를 먹은 각기병 환자는 차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빵을 일본인도 먹기 쉬운 보리로 만들어 각기병 환자를 감소시켰습니다.



이후 가네히로의 연구는 비타민의 발견으로 이어져, 비타민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는 가네히로의 선견이 크게 평가받았습니다. 이 일로부터 다카기 가네히로는 ‘비타민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네히로는 일본의 의료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의료학교와 간호학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 일본의 의료와 간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앙의 현재, 모두가 충실한 의료체제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실현하려 한 가네히로는, 미야자키현 출신의 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 매우 자랑스러운 인물 중 한 명은 아닐까요?

아직 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에서 많이 나는 오이와 피망을 먹고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지 않으실래요?

※일본어 번역은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